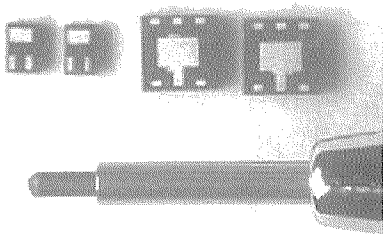


## 광전자, 최소 칩사이즈패키징 기술 개발



광전자(대표 이택렬 <http://www.aulk.co.kr>)는 RF용 트랜지스터·다이오드 등을 최소형으로 패키징할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전자가 개발한 칩사이즈패키징(CSP) 기술은 소자의 외부 리드 없이 직접 기판 위에 심는 SMD(표면실장다이아이스) 방식을 적용, 칩 사이즈에 근접하는 1.0x0.6x0.45mm의 초소형이면서 무게도 0.0006g의 초경량을 실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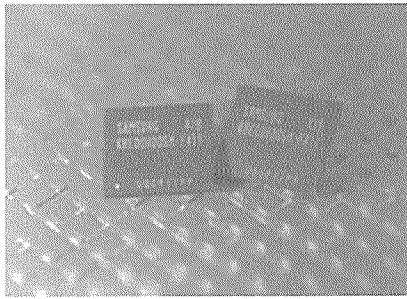
광전자는 이 패키지는 기존보다 실장 면적을 최대 84%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전자는 이미 이 패키지를 적용한 제품을 일부 샘플 출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위성통신·모바일폰·케이블모뎀·GPS 송수신단 등 초소형 또는 경량화가 요구되는 부품소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전자 측은 “이번 업계 초소형 CSP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휴대폰용 반도체시장을 겨냥해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2월 개발에 착수해 약 1년 6개월 만에 샘플 출하에 성공했다”며 “이 크기의 패키지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번째의 초소형·초경량 제품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세계최대용량 2.5Gb MCP 출시

삼성전자가 최대용량 MCP(다중



칩; Multi-chip Package)로 3세대 휴대폰용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

삼성전자는 대용량 낸드(NAND) 플래시와 모바일 D램을 탑재, 메모리 용량이 2.5Gb(기가비트)에 달하는, 세계최대용량 MCP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하나의 패키지에 1Gb(기가비트) 낸드 플래시와 256Mb(메가비트) 모바일 D램을 각각 2개씩, 총 4개를 적층한 4칩 MCP이다.

기존에는 512Mb 낸드플래시 2개와 256Mb 모바일 D램 2개를 적층한 4칩 MCP가 최대용량이었다.

이번 2.5Gb MCP는 3세대 휴대폰에서 동영상용을 저장하고 구현할 수 있으며, 낸드 플래시는 동영상·사진 등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용으로, 모바일 D램은 대용량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버퍼 메모리로 사용된다.

특히, 이번 MCP에 탑재된 낸드 플래시의 용량이 총 2Gb, 모바일 D램의 경우는 512Mb에 달해, 이 제품을 휴대폰에 탑재할 경우 최대 4시간 분량의 QVGA급(화소수: 320x240) 고화질 동영상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영화 2편 정도는 휴대폰으로 다운받아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됐다.

MCP는 1칩-1패키지 방식의 일반 메모리 제품과 달리 여러 종류의 메모리 칩을 1개의 패키지에 적층시킨 제품으로, 응용처에 따라 필요한 메모리를 조합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휴대폰

의 실장공간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과 동영상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휴대폰과 PDA 등 휴대기기는 물론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MCP의 사용량 증가와 고용량화 추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2.5Gb MCP 제품을 올 연말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며, 올해 중으로는 4Gb 이상 용량의 낸드 플래시를 탑재한 한층 확대된 용량의 MCP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칩·4칩 MCP 제품을 주축으로 다양한 종류의 MCP 제품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번 대용량 MCP 개발로 고부가의 차세대 MCP 분야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대용량 MCP의 최대 시장인 3세대 휴대폰 시장은 올해 3천6백만대에서 '08년에는 2억8천만대로 연평균 67%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 삼성전자, 세계 최초 HDD(하드 디스크) 내장 카메라폰 선보여



삼성전자가 6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부산 ITU Telecom Asia 2004」에 세계 휴대폰 업체로는 처음으로 HDD(하드디스크)가 내장된 메가픽셀 카메라폰을 선보여 휴대폰 기술력을 과시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HDD 내장 메가픽셀 카메라폰(모델명: SPH-V5400)은 1.5GB(기가바이트)용량의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내장해 메모리 용량을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QVGA급(해상도) LCD를 내장했다.

또한, 이 제품은 100만화소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선명한 카메라 촬영은 물론 MP3, E-Book(전자책), 한영/영한 사전 기능 등 첨단 기능이 구현되는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캠코더 촬영용 고감도 마이크를 채용해 캠코더 기능을 강화했으며, 듀얼 스피커 채용으로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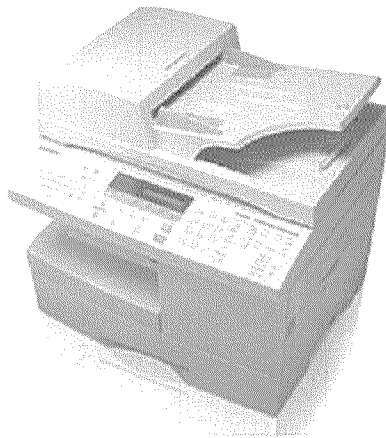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개발 완료한 HDD 내장 메가픽셀 카메라폰을 이 달 중순경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첨단 기술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카메라폰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리더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PC없이 e-Mail 전송 레이저복합기**

삼성전자가 PC없이도 이메일(e-Mail)을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복합기 『SCX-6320F』를 출시한다.

『SCX-6320F』는 기존 복합기가 가지고 있던 출력·스캔·복사·팩스의 4가지 기능 외에 이메일 전송 기능인 『스캔 to 이메일』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스캔 to 이메일』은 네트워크 카드



를 장착할 경우 스캔한 문서나 수신된 팩스를 PC없이 바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으로 스캔 문서를 PC에 복사·저장하거나 수신된 팩스를 다시 스캔하여 PC로 옮겨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작업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미리 저장해 놓고 여러 명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도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팩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SCX-6320는 분당 20장의 빠른 인쇄 및 복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양면복사·모아찍기·복사배율 자동 맞춤 등 기존 아날로그 복사기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복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550매의 대용량 카세트를 기본 장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급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최대 1200매의 급지가 가능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 준다.

스캔 기능은 최대 4800dpi의 CCD 모듈을 채택한 평판형 스캐너로 입체물 컬러 스캔이 가능하다.

최대 40%까지 절약을 가능한 토너 절약 모드를 통해 유지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SCX-6320F는 제품 관리의 용이성도 최대화하였다.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삼성전자의 독자

소프트웨어 SyncThru 기능을 통하여 웹상에서 제품의 사용 상태 및 각종 환경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자체에 카운터가 있어 제품의 출력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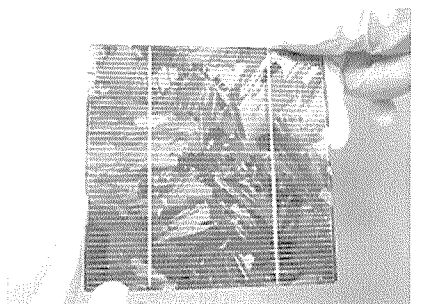
삼성전자 디지털 프린팅 사업부의 강기훈 과장은 “최근 IDC 및 가트너와 같은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는 복합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사무실에서 A3 용지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A4 용지의 복사 및 출력 수요가 전체 약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 복사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출력 및 『스캔 to 이메일』 기능 등을 추가한 SCX-6320F는 사무공간에서의 편리성을 최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 줄 제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제품 SCX-6320F의 소비자 가격은 155만원이며 팩스기능이 제외된 SCX-6220은 135만원이다.

삼성전자는 출시에 맞추어 10월 말까지 제품 구매 고객 중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모하는 모든 고객에게 USB 공기청정기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SDI,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착수**

삼성SDI(대표 김순택)는 최근 산업자원부 태양광 사업단이 선정한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돼 향후 3년 동안 약 5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후면 전극형 실리콘 태양 전지'와 '3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삼성SDI가 개발에 착수한 '후면 전극형 실리콘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전극이 태양전지 셀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배치되는 데 반해 전극을 모두 후면에 배치, 태양전지 모듈 작업시 공정이 단순화돼 자동화에 유리해질 뿐더러 설치시에도 양면 태양 전지보다 외관이 훨씬 미려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한, 3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는 기존 다 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의 전극을 3개로 집약, 원가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태양전지를 생산해 휴대용 기기·전기자동차·저궤도 인공위성 등 분야에서 태양전지의 보급화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 회사 기흥중앙연구소 에너지랩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개발 과제 참여를 계기로 일본 교세라·샤프·산요, 영국 비피솔라 등 해외 업체들이 개발중인 후면전극형 및 3 결정 방식의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대열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올 초 태양전지의 전 단계 기술인 다 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를 개발해 조선대 등 두 곳에서 시범 사용해본 결과, 에너지 변환효율이 15.5%로 나타나 해외 경쟁 업체 대비 대등한 수준을 보여 3 결정 실리콘 제품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 측은 "그동안 축적된 실리콘 내 불순물 및 결합 제어 기술·정밀 제어 기술 등을 바탕으로 고효율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한다"며 "특히 전극설계 기술 및 전극재료의 저가화,

사진식각공정의 최소화에 관한 공정기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이번 실리콘계 태양전지 이외에도 유기물 재질의 태양전지 등 차세대 소재 및 제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리튬 이온 및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업체로서의 면모를 한층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

### ▶ 심텍, 지난달 112억원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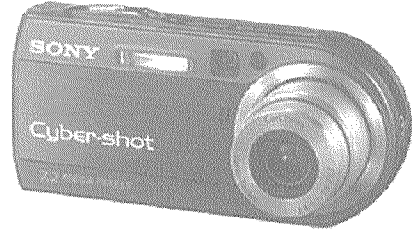
인쇄회로기판 업체 심텍(대표 전세호 <http://www.simmtech.co.kr>)은 지난달 매출과 순이익이 전월 대비 각각 0.8%, 46% 증가한 112억 1,000만 원, 10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영업이익은 전월 대비 76.8% 증가한 5억 9,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이와 관련 서브스트레이트 부문과 빌드업 기판 부문 수주가 전월 대비 각각 71.4%, 60.9% 증가한 데 힘입어 창사 이래 1501만 달러의 수주 기록을 세웠고 고부가가치 신제품인 DDR-II 용 메모리모듈과 BOC(Board On Chip)매출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텍 김영구 CFO는 "8월까지 누계 918억 원의 매출과 12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내달부터 실적이 대폭 호전될 전망이어서 연간 경영목표인 매출 1543억 원과 순이익 192억 원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 소니코리아, 세계 최초 720만화소 디카 출시

소니코리아(대표 이명우 <http://www.sony.co.kr>)는 720만화소급 디지털 카메라 '사이버샷 DSC-P150·사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총 화소수 740만에 유효 화소수 720만을 지원해 최고 3072×2304 해상도의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며 칼 짜이즈 '바리오 테사' 렌즈를 탑재해 색상 재현력이 뛰어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DSC-P8이나 P10보다 사이즈·무게·부피 면에서 각각 24% 더 얇게, 8% 더 가볍게, 18% 더 작게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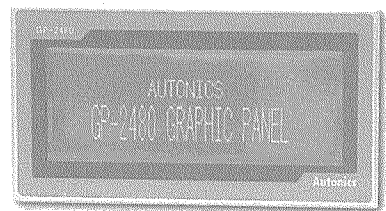
한글 디스플레이가 지원되고 LCD 창에 뜨는 팝업형 아이콘 크기가 커져 사용하기가 더 쉬워졌다.

온라인 쇼핑몰(<http://www.sonymstyle.co.kr>)과 직영점에서 오는 12일까지 예약판매하며 이 기간에 구입하면 사이버샷 파우치, 디지털 스튜디오 1만 원 인화권, 멤버십카드 더블 마일리지 적립서비스(4%) 등이 제공된다.

가격은 69만9,000원으로 10만원을 추가하면 플래키지로 구입할 수 있다.

### ▶ 오토닉스, 그래픽 패널 GP-2480 출시

GP(Graphic Panel)는 PLC와 같은 범용 제어기기류 또는 모션컨트롤러와 같은 전용제어기의 변수를 감시



하기 위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장치이다.

(HMI : Human-Machine Interface 또는 MMI : Man-Machine Interface 장치의 일종)

컨트롤러가 사용자와의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공정의 중요한 변수가 현재 어떤 값 또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에 GP를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GP는 LCD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어변수를 감시할 수 있고, 터치스크린의 터치조작으로 화면을 전환하거나 변수의 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 GP와 컨트롤러는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어 상호정보를 교환한다.

기기의 변수는 태그로 불리는 그래픽 개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감시 대상이 되는 물리적 변수가 온도일 경우 수치 표시 태그를 사용하여 온도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고, 트렌드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감시할 수도 있다.

GP의 화면은 이러한 그래픽 개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 화면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GP Editor를 사용하여 편집해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태그의 화면 상의 형상, 배치, 속성 등의 화면 데이터를 편집하고 난 후 작성된 데이터를 GP로 다운로드하면 GP는 화면 데이터에 따른 감시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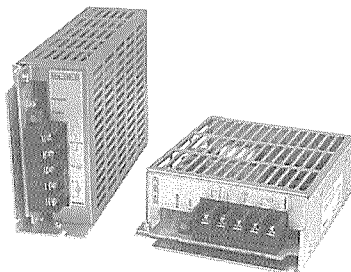
■ 특징

- 비용절감, 공간절약, 조작용이
- PLC, 전용 제어기기 등의 작동을 그래픽 화면을 통해 감시와 조작을 하는 맨 머신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기능
- 프린터 및 바코드리더 접속

● 최대 500페이지의 사용자 화면 작화 가능

- 터치 인터페이스 화면
- 전용 작화 소프트웨어 검비
- 멀티 통신포트 지원
- web을 통한 제품 업그레이드
- LCD Type : STN Blue Negative
- 240×80 Dot의 해상도 및 112.8×37.6mm의 표시영역
- 소형사이즈 : W145×H75×D37mm

오토닉스,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 출시



SPA-100-24

SPA-050-24

■ 특징

- 소형, 경량화, 고효율
- 과전류 보호회로, 출력단락 보호회로, 과열방지 기능 내장, 과전압 차단회로(SPA-075/100)
- 안전규격 IEC60950, IEC50178 적합
- 전자파 내성(EMS) EN61000-6-2 적합
- 전자파 방해(EMI) EN61000-6-4 적합
- 출력전압: 5VDC, 12VDC, 24VDC
- 출력전력 및 입력전원 형태

\* 다양한 모델

|      |  |            |            |            |            |            |
|------|--|------------|------------|------------|------------|------------|
| 모델명  | SPA-030-05                                       | SPA-050-05 | SPA-030-12 | SPA-050-12 | SPA-030-24 | SPA-050-24 |
| 입력전압 | 100-240VAC (85-264VAC)                           |            |            |            |            |            |
| 출력전압 | 5VDC   |            | 12VDC      |            | 24VDC      |            |
| 모델명  | SPA-075-05                                       | SPA-100-05 | SPA-075-12 | SPA-100-12 | SPA-075-24 | SPA-100-24 |
| 입력전압 | 1100-120/200-240VAC(85-132/170-264VAC) 사용자 절환 방식 |            |            |            |            |            |
| 출력전압 | 5VDC   |            | 12VDC      |            | 24VDC      |            |

30, 50W : Free 전원타입(100-240VAC 50/60Hz)

75, 100,W : 사용자 절환 타입(100-120VAC, 200-240VAC 50/60Hz)

이레전자, 네트워크 모니터 본격 판매



이레전자산업(대표 정문식)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및 랜 접속포트가 장착돼 한 대의 컴퓨터에 최대 10대까지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모니터 '네오투스'를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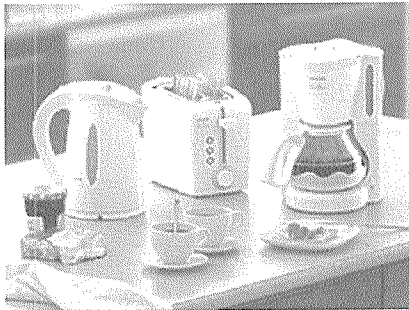
이 제품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추가 설치시에도 PC본체만 업그레이드하면 모든 네트워크 모니터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초기 구매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17인치 70만원대, 19인치는 80만원대이며 기존 모니터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외장형 모델인 '오피스 스테이션'은 30만원대로 일반 PC를 추가 설치할 때에 비해 소요비용이 약 50%에 불과하다.

이레전자 정문식 사장은 "네트워크모

니터는 자체 개발한 WoIP(windows over IP) 기술을 탑재한 신개념 제품으로 불황기의 기업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컴퓨터 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LCD모니터뿐만 아니라 PDP TV나 LCD TV로 확대하고 해외시장에도 본격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필립스전자 소형주방가전 시리즈 '뉴 쿠치나' 출시



필립스전자(대표 신박제)는 커피메이커와 토스터, 샌드위치 메이커, 무선주전자, 튀김기로 구성된 뉴 '쿠치나(Cucina)'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쿠치나 커피메이커(모델명: HD7502)'는 커피향을 장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용기 디자인을 강화했으며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충격 보호 테를 장착했다.

'쿠치나 토스터(모델명: HD2615, HD2621, HD2623)'는 1~2분 안에 편리하게 토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7단계 온도조절기능, 바게뜨나 식빵의 한쪽 만 굽는 기능 등으로 개개인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쿠치나 샌드위치 메이커(모델명: HD2400)'는 햄과 치즈만 있으면 편리하게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열판코팅 처리해 음식이 달라붙지 않고 사용 후 세척이 용이하다.

필립스 특허기술인 '후막평판가열 방식'으로 설계돼 45초면 2잔(250ml)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쿠치나 무선주전자(모델명: HD4674)'와 본체를 제외한 모든 부속품이 분리 가능해 요리 전후로 세척이 간편한 '쿠치나 튀김기(모델명: HD6155)'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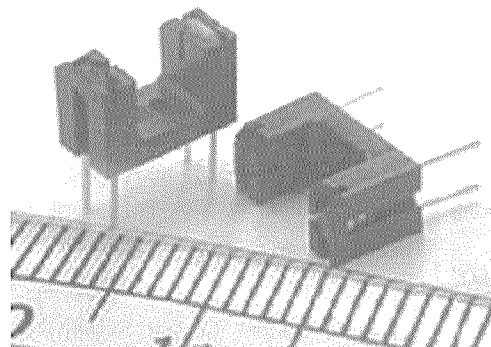
가격은 커피메이커 8만9,000원, 토스터 5만9,000~7만9,000원, 샌드위치 메이커 6만9,000원, 무선주전자 7만9,000원, 튀김기 27만9,000원이다.

### 한국고덴시, 물체의 검출거리 넓은 투과형 적외광센서 개발

광반도체 소자 전문업체인 한국고덴시(대표 나카지마 히로카즈, <http://www.kodenshi.co.kr>)는 최근 물체의 검출거리를 넓은 투과형 적외광센서(모델명 KIT4001A·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 크기(8.7mm×5.4mm)는 비슷하지만 물체의 검출거리를 3mm에서 4.5mm로 늘려 센서의 감지 특성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광소자에 가시광 차단 필터를 적용, 외부 광으로 인한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이 센서는 제품 실장시 인쇄회로기판(PCB)으로부터 제품 하단부에 침투하는 유해 가스를 막는 구조로 설계돼 제품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도어록(DDL)과 프린터 등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 LG전자, 16배속 슈퍼멀티 DVD Writer 출시



LG전자가 16배속으로 DVD+R 기록이 가능한 16배속 슈퍼멀티 DVD Writer(모델명: GSA-4160B)를 출시한다.

슈퍼멀티 DVD Writer는 CD 7장 분량의 4.7GByte(기가바이트)의 대용량 데이터를 DVD 미디어 단 한 장으로 재생, 기록,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16배속 슈퍼멀티 DVD Writer 제품은 \* Double Layer(더블 레이어) 기록이 지원된다.

또한 더블 레이어 기록이 가능한 미디어로 기록시 기존 대비 2배인 CD 12장 분량의 8.5GB 대용량을 1장의 미디어에 저장 가능하며, 고화질을 유지하면서 기존 대비 DVD 미디어에 약 1.8배의 장시간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번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LG CD-RW 및 COMBO

드라이브를 통해 소비자에게 친숙한 어헤드(Ahead)社의 Nero Express(CD, DVD 데이터 기록)와 InCD(Packet 기록) 및 Cyberlink 社의 Power Producer Gold(DVD 캡처, 편집, Photo Slide 기록)와 PowerDVD(MPEG2 재생)를 제공하여 간단하게 CD, DVD의 각종 미디어에 데이터, 음악, 정지 영상, 동영상 등을 마음대로 저장, 편집하여 나만의 개성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 제품은 동영상과 음악 등의 미디어 기록에 적합한 DVD+R/RW, AV기기와 호환성이 좋은 DVD-R/RW 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기록 및 편집에 탁월한 DVD-RAM의 모든 DVD 규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D-R과 CD-RW 기록도 가능하며 CD와 DVD의 모든 미디어에 읽기, 쓰기, 재기록을 드라이브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DVD-RAM은 최고 배속인 5배속으로 결점보완기술(Defect Management)를 채택하여 미디어의 흠점, 지문 등의 작은 결점도 보정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회까지 반복기록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LG전자의 DVD기록계는 2004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8년 이후 6년 연속 광스토리지 세계 판매 1위를 자랑하고 있다.

◎Double Layer(더블 레이어)

디스크 단면에 기록층을 2층으로 만들어 각각의 층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규격이다. 한 층에 4.7GB의 용량을 2층으로 나누어 8.5GB의 대용량을 저장한다.

『LG전자, 세계 최대 900mm 냉장실 갖춘 '프렌치 디오스' 출시』



LG전자가 양문여닫이 냉장고 중 세계 최대 가로 900mm 냉장실을 갖춘 신개념냉장고 '프렌치 디오스(French DIOS)' (모델명 : R-F718G, 7141)를 출시했다.

'프렌치 디오스'는 양문여닫이로 구성된 유럽풍의 고급 테라스 문을 뜻하는 프렌치 도어(French Door)를 채용한 제품.

LG전자는 최근 몇 년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근 과일, 야채 등의 냉장 보관 식품의 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냉장실을 크게 넓혔다. 일반 양문여닫이 냉장고 냉장실이 가로 400mm정도 인데 비해 프렌치디오스는 많은 양의 식품을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가로 900mm의 세계 최대 초대형 냉장실을 갖추었다.

'프렌치 디오스'는 LG전자가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제품으로 일반 양문여닫이 냉장고에 있는 냉장실-냉동실 사이의 중간 칸막이를 없앴으로써 냉장실 공간을 넓혔고, 소비자들이 자주 쓰는 냉장실을 눈높이에 맞게 윗부분에 둔 국내 최초의 상냉장 하냉동 구조의 냉장고다. 또한 LG전자는 '역류 냉각 시스템(Back Current Cooling System)'을

도입해 찬 냉기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게 했다.

이 제품은 지난 4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최대 가전 전시회인 '2004 키친 앤 배스 쇼(Kitchen & Bath Show)'에서 호평을 받았고, 미국을 비롯한 북미시장에서는 7월부터 판매돼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 LG전자가 이번에 국내시장에 첫 출시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냉동실 개폐시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을 서랍형의 '틸팅(Tilting)구조(=문을 경사도있게 비스듬이 만든 구조)'로 만들어 냉기손상을 최대한 줄였다.(사진2참조) 또한 반찬그릇들을 넣을 수 있는 와이드 서랍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음식물 냄새 및 각종 유해 입자를 빨아들이는 '나노 탈취', 야채와 과일을 더욱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비타민 야채박스', 녹차성분이 탈취제에 적용돼 공기정화와 향균 작용을 하는 '녹차이온냉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다.

LG전자 냉장고사업부장 박영일 상무는 "냉장고의 선진시장인 북미시장에서 호평을 받은만큼 프렌치 디오스가 국내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세계최대 일체형 55" LCD TV 출시』

LG전자가 세계최초로 55인치 일체형 LCDTV를 출시하며 FPD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미디어(DDM)사업본부장 우남균(禹南均)사장, CTO 백우현(白禹鉉)사장을 비롯, 주



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최대 55인치 일체형 LCD TV 발표회'를 가졌다.

PDP TV는 60인치 대까지 상용화된 반면, LCD TV는 고화질·대화면에 대한 고객 니즈(Needs)가 증대해왔고 LCD TV업계에서도 대형화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으나 50인치 대의 제품은 현재까지 출시되지 않았다.

이번에 LG전자가 출시한 55인치 LCDTV는 세계최초로 50인치 대의 제품이면서 LCDTV업계의 기존 최대 크기인 46인치 LCDTV와는 달리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셋탑박스를 일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출시한 55인치 일체형 LCDTV는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XD Engine」을 탑재해 디지털신호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한편, 전송과정에서의 신호세기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해 밝기와 명암비를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 S-IPS 모듈을 채용하여 세계최고 수준인 좌우상하 176도의 광시야각으로 기존의 LCD TV의 단점을 극복해 어느 위치에서나 뛰어난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개인용도의 소형 LCDTV와 달리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다.

모니터·디지털TV 전용단자 등 다양한 입출력단자를 채용해 인터페이스를 넓혔으며 AVL(Automatic Volume Level)과 SRS TruSurround를 적용하여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음질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1920×1080 (1080p)의 해상도를 채택하여 기존 디지털TV보다 2배이상 뛰어난 Full HD급의 화질을 구현한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LG전자 DDM 사업본부장 우남균 사장은 디스플레이 &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한 향후 사업전략 대해, "세계최대의 55인치 일체형 LCDTV 출시를 계기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올해 900만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LCDTV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알리는 한편 FPD(Flat Panel Display)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며 "또 LCDTV·PDPTV에 사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홈AV사업, 카인포테인먼트(Car Infotainment)사업, 모바일 AV사업 등 여러 사업간의 전략적 연계와 육성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2007년 Global

Top 3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디지털TV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심 칩셋 ▲디스플레이 부품 ▲소프트웨어(Software) 등 3개 영역의 핵심경쟁력과 디지털TV 전송기술에 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FPD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LCDTV는 2008년 1위, PDPTV는 2007년 1위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LG전자는 지난해 북미(멕시코)·유럽(폴란드)·중국(심양) 등 3대 해외거점에 디지털TV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고객별 Needs에 맞는 제품차별화 전략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LCDTV의 명암비를 두 배 이상 개선한 1,200:1의 세계최고 명암비 42인치·37인치 일체형 LCDTV는 물론, 32·30·26·23·17·20·15인치 등 LCD TV full Line-up을 선보였다.

한편 LG전자는 세계최대 55인치 일체형 LCDTV 출시를 기념해 구입고객에게 DVD플레이어 복합 17인치 LCD TV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30인치 및 37인치 일체형 LCD TV는 고객체험단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판촉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